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 교육을 생각한다 | 문화와 창조 | 도시와 삶

광주의 답답한 도시경쟁력 순위



노경수

중국사회과학원이 2009~2010년 분석한 세계 500대 도시경쟁력지수에서 광주가 아예...

매자들은 각자의 목적에 맞는 최적의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구매자들의 정보 원천은 개인적 원천...

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도시평가자료 속에서 경쟁하는 도시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분석할 수 있으며, 향후 도시발전의 목표지 설정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도시평가 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는데, 많은 도시 구매자들이 더 정확한 도시평가자료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원하는 장소를 물색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통상 평가순위가 높은 도시는 관측은 편이고 낮은 곳은 좋지 못해서, 평가지수가 기대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평가가 나쁘면 주민이나 산업체의 이주 등 도시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기준이 자의적이고 일치하지 않는 데도 왜 이러한 도시평가지수를 많이 찾는 것일까? 그것은 평가지수가 도시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세계 500대 도시경쟁력지수에 광주가 빠져있다는 사실은 애석하기 그지없다. 앞으로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시평가에 높은 평가지수를 갖는 것이 도시마케팅을 위한 최상의 홍보수단임을 알아야겠다.

오늘의 칼럼



송정웅

하루가 멀다하게 지난 여러 세기에 걸쳐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이용하여 이 땅에 많은 것을 이룩해 놓았습니다.

나고 물어보았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뒤에 보니 사람 그림이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맞추었더니 지도가 이렇게 완전해졌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인간 자신

질, 화려한 세상, 우주를 여행하는 기술 등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제부터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인간의 기술로 엄청난 것들을 잉태하기 했으나 해산할 능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덩치는 인간들입니다. 인간이 거듭나야 합니다. 인간의 변화 없이는 세계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순해지면 자연도 순해지고 인간의 세계가 서면 자연도 영풍한 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고



박대중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모 TV드라마를 우연히 시청한 일이 있었는데,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인물들 중 신혼부부의 대화내용을 들어봤더니, 부부가 서로에게 늘상 "했니?" 혹은 "그래라"하는 식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었다.

점을 지켜 나가기 위해 남편도 아내에게 갖듯이 존댓말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가까울수록 부부간에 지켜야할 선을 넘지 말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자세로, 그리고 언어로 될 수 있으면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본이 되고 좋을 것이다.

TV 드라마를 닮아가는 가정 언어

만 이런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 초기에는 말과 행동에 서로 조심스러워 하다가도 많은 세월을 함께 지내다 보면, 자칫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다가 원치 않는 불행은 초래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게도 "그래라", "그렇지?" 하며 친구에게 하듯 거리낌없이 말을 내리서 하는데, TV드라마에서는 다 큰 성인들도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올바르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며 지도한다고 한다.

울창한 숲·계곡이 있는 내장산으로 피서 오세요

이때쯤이면 누구나 한번쯤 하는 고민이 바로 '피서'가 아닐까. 울창한 숲과 시원한 계곡 등 신비로운 자연과 하나 되는 내장산 국립공원 원정길을 소개한다.

성며 있어 가족과 친구, 연인끼리 말없이 걸어도 좋은 곳이다. 국립공원 '자연환경관내원'으로부터 자연과 숲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탐방객들에게 MP3를 대어해주는 '스토리텔링 서비스'가 준비돼 있다.

시설

민주당의 '자리 독식'이 부른 도교육위 파행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명의 교육위원들이 교육위 구성과 관련, 민주당이 위원장 및 간사 자리를 독식한 데 반발해 지난 19일부터 의정활동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 표심이나 교육계의 기대와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교육위원들의 이같은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본다. 비전문가 교육위원장은 교육분야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과 파반수가 넘는 교육위원과의 부조화 등 파행 운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위는 21일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전체 9명의 위원 가운데 교육의원 5명이 불참해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일선 학교 통제권과 교육청 조직개편 등을 담은 조례안이 표류하면서 당장 2학기부터 교육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교육위의 파행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책임이 크다.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 다수의 힘을 앞세워 독차지 했더니 공당으로서의 자제는 아니다. 광주시와 대구시, 경남도, 강원도의 회가 교육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과는 비교되는 일이다.

교육위원들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들어 교육위원장은 교육의 원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파반수 교육위원들을 제치고 교육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독식하는 것은 주민

그렇다고 교육위원들이 의정활동을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 주장이 아무리 정당성을 갖더라도 교육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면 역풍을 맞게 된다. 의회 집행부와 교육의원 측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 길만이 순리다.

지자체 예산낭비 '양립교 보도' 뿐이겠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시 남구 양립교 보도 공사는 전시장 행정이 빚은 지자체 예산낭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주민들이 처음부터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한 광주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한 예산 낭비 우려 등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시는 공사를 밀어붙였다. 이는 '혈세'의 소중함에 대한 행정의 무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반 시민도 지적한 문제점을 간과한 공무원들의 비전문성이 놀랄 따름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 10월 남구 양립교 경관개선사업을 하면서 1억5400만 원을 투입해 교량 바닥재를 유리로 교체했다. 하지만, 공사 후 유리파손 등으로 관리·운영에 문제가 끊이지 않아 최근 유리 바닥 위에 아스콘을 덧씌우기 했다고 한다. 공사후 겨우 2년만이다. 이에 대해 시는 "공사 초기에 외관에만 치중하면서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던 같다"고 밝혔다.

예산낭비가 어디 양립교 보도뿐이겠는가. 밀정 보도블록을 파헤치거나 최근에 설치한 도로 가드레일을 다시 새것으로 교체하고, 한 달이 멀다 하며 전시장 축제가 열리는 등 곳곳에서 예산이 줄줄 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광주·전남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다. 예산을 마른 수건 짜듯 집행해도 시원찮은 관에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니 지역의 앞날이 걱정이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차제에 지자체의 방만 운영과 예산낭비를 제도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無等鼓

스마트폰의 대명사인 아이폰의 수신 결함 논란이 결국 제조사의 제품 하자 인정으로 일단락됐다. 스티브 잡스 애플 CEO가 아이폰4의 수신 결함을 인정하고 케이스를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잡스는 수신 결함 문제가 제기되자 처음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안테나 게이트'라는 용어를 써가며 아이폰만의 문제가 아닌 스마트폰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기도 했다.

문제 제기에도 하와이로 휴가를 떠났던 잡스가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와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을 인정했었다.

컨슈머리포트



주지하다시피 잡스는 IT업계의 황제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CEO다. 아이팟·아이폰·아이패드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제품을 내놓으며 애플 신화를 써왔다. 이 때문에 안테나게이트로 흡입을 입기전만 하더라도 신으로 불리기도 했다. 신같은 존재인 잡스가 결국 소비자의 힘에 무릎을 꿇었다. 컨슈머리포트가 주인공이다. 미국 소비자연맹이 발간하는 월간지인 컨슈머리포트는 자체 테스트를 통해 "수신 결함이 하드웨어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폰4를 추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언론의

컨슈머리포트의 힘은 '오직 소비자의 이익만 생각한다'는 이 잡지의 모토처럼 소비자에게서 나온다. 외부 광고는 실지 않고 테스트용 제품을 직접 사서 엄정한 평가를 해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상품 테스트 예산만 한해 253억원이라고 한다. 권위와 신뢰는 자본으로부터 독립될 때 비로소 얻게 된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비자 운동이 언제쯤 가능할까. 부러워하면서도 기다려지는 이유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